

(이스탄불=연합뉴스) 김승욱 특파원 = 유럽  
주요국 증시는 20 일(현지시간)  
유럽연합(EU)의 경제회복기금 논의를  
주시하며 관망세를 보였다. 영국 런던  
증시의 FTSE 100 지수는 전 거래일 증가  
대비 0.46% 하락한 6,261.52 로 거래를  
마쳤다. 반면, 독일 프랑크푸르트 증시의  
DAX 30 지수는 0.99% 오른 13,046.92 로,  
프랑스 파리 증시의 CAC 40 지수는 0.47%  
오른 5,093.18 을 기록했다. 범유럽지수인  
유로 Stoxx 50 지수도 0.68% 상승한  
3,388.34 로 마감했다. 시장은 EU  
지도자들의 신중 코로나바이러스  
감염증(코로나 19) 대응을 위한  
경제회복기금 논의에 촉각을 기울였다.  
이날 EU 정상들은 지난 17 일부터 나흘째  
벨기에 브뤼셀에서 7 천 500 억 유로(약  
1 천 33 조원) 규모의 경제회복기금과  
1 조 740 억 유로(약 1 천 479 조) 규모의  
2021~2027 년 EU 장기 예산안에 대한  
협상을 이어갔다. 그러나 EU 회원국들은  
경제회복기금 규모, 보조금과 대출 비율 등  
지원 형식과 조건을 두고 이견을 보였으며  
이날 장 종료 전까지 입장 차이를 좁히지  
못했다. kind3@yna.co.kr <저작권자(c)  
연합뉴스, 무단 전재-재배포  
금지>2020/07/21 01:43 송고

